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스팟 리포타주 : **Vertigo**

글 / 사진 : 이성재

## 버티고 Vertigo

- 김충기 대표 -

신촌역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건축물의 이름이다. 새로운 공법과, 컨셉 그리고 버티고를 지으신 김충기 대표의 열정이 보이는 공간이다. 아직 완공 되지 얼마 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앞으로 신촌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장로로 거듭나기에는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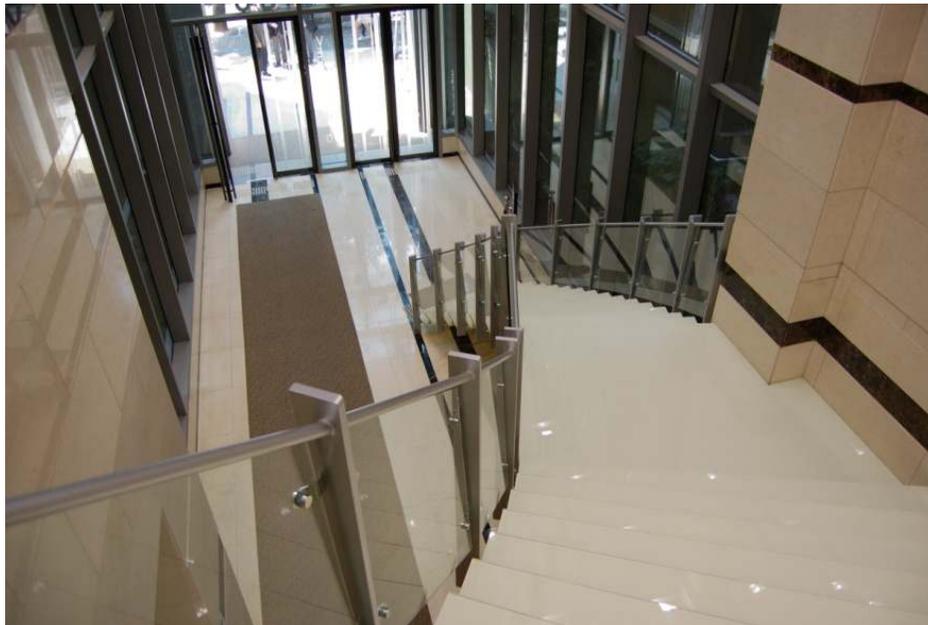
## intro

신촌역 부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 <vertigo>. 주변의 건축물들과 달리 자신만의 컨셉을 보여준다. 아직 완공된 지 얼마 안되었기에 입주된 상가나 사무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둘씩 입점하고 있으며, 지하공간에는 공연장이 들어와 대학가에서 즐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음식점, 상점 등의 입점하는 같은 공간이나, 새로운 무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들어가는 입구의 층계부터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김충기 대표의 설명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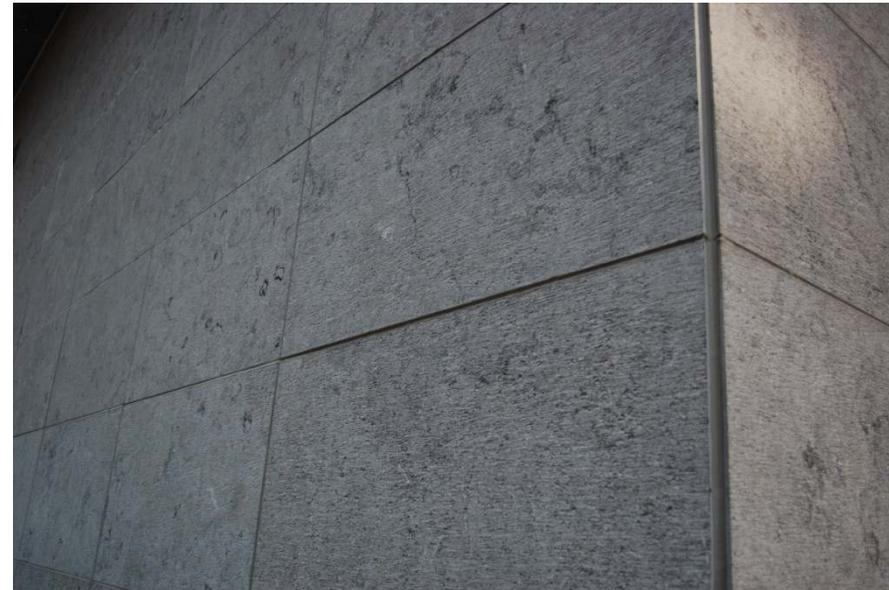
## Floating stair 구름 위의 계단

맑은 하늘, 그 하늘로 걸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컨셉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한 버티고의 중앙현관에 보이는 계단이다. 일자가 아닌 유선형으로 컨셉을 잡고 강화유리를 계단 소재로 택하였다. 아쉽게도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지나갈 때에 아래에서 보이는 부담감으로 베이지 컬러의 불투명 판넬을 아래에 설치하여 그 느낌이 줄어들었다. 유선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 계단의 단계마다 따로 주문하여 맞춤형 유리를 사용하였다. 좀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세부디테일이 부가된 스타일 리쉬한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



## 소재와 기술

<Vertigo>는 겉으로 보거나 안에 들어가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내부공간의 특별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옆의 건물과 높이는 같으나, 층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 바로 김충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 공법은 사진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천장에는 단열재와 구조물 등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수한 공법으로 그 폭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층을 확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친환경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같은 양의 재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물 외장재는 모두 같은 패턴이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를 가져와 일정규격으로 커팅 처리만 한 대리석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외관의 멋을 살리고 있다.



## 김충기 대표

청기와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젊은이만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후문에는 지하에 위치한 공연장의 티켓 부스가 있으며 옥상에도 옥외 정원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올라가서 신촌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약력

1959년 생

1986-한양대학교 기계 설계과 졸업

1992~2009 청기와 대표

2002~ (주)P&C 대표이사

